

주일가정예배

2022년 2월 20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 지어다. (시편 22:23)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하늘 문을 여기고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35장 다같이

1.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2.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젓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3.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4.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후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 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6장 1~2절 인도자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설 교 『지금과 내일』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523장 다같이

1. 어둔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2.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신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아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3.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4.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후렴)

이 때라 이 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 때라
지금 주께 나아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현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지금과 내일

고린도후서 6:1-2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찰스 해튼 스펔전은 1834년 영국 에섹스 지방 캘버턴에서 태어났다(1834-1892).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청교도 목회자였고 그는 17남매 중 맏이었다. 스펔전은 16살 어느 주일 아침, 눈보라 때문에 자신의 교회에 가던 길이 막혀 근처 교회당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못해 구두 수선공인 평신도가 설교하는데, 본문은 사 45:22로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였다. 설교자는 스펔전을 바라보며 “왜 설교자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라고 했다. ‘내 속에 괴물이 있다’고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여 괴로워했던 스펔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회심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나의 죄의 짐이 내 등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내게 실제적인 용서와 실제적인 해방이었다.” 20세에 200여 명이 출석하던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청빙 받아 1만 명 이상 출석하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를 이루었다. 1859년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스펔전은 런던과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일으키고 있었다. ▶오늘 설교는 1864년 12월 넷째 주.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교회에서 고린도후서 6:2를 바탕으로 “Now”(지금)라는 제목으로 시행했다. 고후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는 구원을 은혜와 연결을 시켰고, 공통적인 것은 ‘지금’이라는 단어다. 전반부는 이사야서를 인용했고, 후반부는 바울의 해석이다. 빠르게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계절은 바로 ‘지금, 지금, 바로 지금’이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우리의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현재 은혜와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천국에 가는 길과 지금 지옥에 가는 길이 열렸다. 지금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차차”라고 하면서 미루면, 나중에는 “아차차”하면서 후회하기 될 것이다. 오늘이 은혜를 받을 때이고, 오늘이 구원을 받을 때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나 순종을 말할 때도 한 번도 “내일”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스펔전 목사는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요,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일”로 미루는 마귀의 달력이 아닌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달력에 맞추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영접해 주신다. ▶ 현재의 이런 특권은 신자들에게는 지금 행할 의무를 상기시킨다(순종과 실천). 불신자들에게는 지금 해야 할 것을 일러준다(영접과 믿음). 지금 천국 아니면, 지금 지옥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비밀은 지금 현재를 사는 일이다. 매일 매 시간, 나의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말이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 믿음을 미루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살고, 일 년을 살아도 오늘을 산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오늘을 은혜와 구원의 날로 삼아야 한다. 오늘을 선행을 실천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오늘을 서로 권면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스펙전).